

개인 기록의 특성과 기록화 전략*

The Nature of Personal Papers and Documentation Strategies for
Personal Archives

오명진(Oh, Myung Jin)**

1. 서론
2. 개인 기록의 특성
 - 1) 개인 기록의 생산맥락
 - 2) 기록관리 과정에서의 특성
3. 개인 기록과 성격
 - 1) 성격과 개인차
 - 2) 개인 기록 관리와 성격의 역할
4. 개인 기록의 사례
 - 1) 연세대학교 기록보존소 『김윤경 교수 기록』
 - 2) 국사편찬위원회 『로광욱 컬렉션』
5. 결론

* 본 연구는 2014년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2014S1A5B5A07041358.

** 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강사(mentoroh@hanmail.net).

■ 투고일 : 2017년 7월 8일 ■ 최초심사일 : 2017년 7월 17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7월 23일

〈초록〉

개인 기록은 “기록”으로서의 일반적 특성과 “개인”이라는 맥락이 부여한 고유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 글은 그 중에서도 고유한 특성에 관한 주목이 필요하며 개인 기록 관리에 관한 다양한 방법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록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이 글은 개인 기록이 갖는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먼저, 기록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담고 있는 표준인 ISO 15489: 2016와 개인 기록과 관련된 문헌 연구들을 중심으로 개인 기록의 생산 맥락, 기록관리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개인 기록의 고유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사람의 독특한 성질인 “성격(personality)”과 관련된 이론을 검토하고 개인 기록 관리에서의 적용 필요성을 검토했다. 아울러 국내의 기록 관리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실제 개인에 관한 기록 군에서 성격을 중심으로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것이 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개인 기록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야말로 기록화 활동에 있어 수집대상에 대한 이해와 전략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기록이 가진 특성을 다양한 차원에서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개인 기록을 기록화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개인 기록, 기록화 전략, 성격, ISO 15489, 기록군

〈Abstract〉

Personal records have both general characteristics as “records” and unique characteristics granted by the context of “personal.” This study was conceived by a need to focus on those uniqu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records and examine them specifically to determine various methods for personal records management.

In an effort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records, the study made an attempt at two different approaches. First, it examine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records that were approachable in the production context of personal records and the process of records management with a focus on the ISO 15489: 2016 standard, which offers the most fundamental principles of records management, and the literature researches on personal records. It then reviewed theories related to “personality,” one of man's unique traits, and its applicability to personal records management. In addition, the investigator examined personal characteristics with a focus on personality in the group of actual personal records housed at records management agencies in the nation and checked their influences on records managemen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records should be the base of understanding of and strategies for objects to be collected in the documentation activities. That first requires efforts to discover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records across diverse dimensions, and it should be employed as the core of documentation strategies for personal records.

Keywords : personal records, documentation, personality, ISO 15489, manuscript collection

1. 서론

우리는 개인과 관련된 기록 즉, 개인이 생산하였거나 개인에 의해 축적된 기록을 개인 기록이라고 한다. 기록학용어사전에서는 개인 기록을 “개인이 개인 업무나 개인사와 관련하여 생산, 수집한 기록으로서 일기나 메모, 편지, 취미활동과 관련된 문서들이 이에 속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한

마디로 개인이라는 관점에서 성립된 기록들의 묶음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기록학 이론에서 개인 기록은 주로 매뉴스크립트 전통의 맥락에서 다루어졌으나 그 관심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으며 주로 영구기록으로서 공공기록과는 다른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¹⁾. 이러한 경향에 대해 쿡(Terry Cook)은 과거 개인 기록을 포함한 민간기록은 도서관의 권한에 속해 있었으며 이러한 비정부기록들의 희생으로 인해 정부기록에 포커스가 가해졌다고 평하고 있다(Cook, 1997).

특성(特性)이란 어떤 것에만 있는 특별한 성질을 말한다(보리 국어사전, 2013). 개인 기록은 “기록”으로서의 특성과 “개인”이라고 하는 맥락이 부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 말은 개인 기록이 일반적인 기록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고 또한 개인 기록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특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그 중에서 고유한 특성에 관한 주목이 필요하며 개인 기록 관리에 관한 다양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록이 갖는 고유한 특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 기록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재단 등 다양한 성격과 조직, 재정, 인력 등 내부적인 인프라가 상이한 기관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현재 개인 기록관리의 상황은 한마디로 다양한 기관에서 기관의 정체성이 주문하는 바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인다. 공공기록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민간의 기록들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놓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록관리기관에서의 성과

1) 민간기록(Private records)이란 공공기록(Government records)와 대별되는 의미로서의 기록관리 대상이다. 민간기록은 역사적 수고본(historical manuscript)을 의미하며 회사(corporates), 개인(personal), 가문(family) 기록으로 유형화한다. 개인 기록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론가인 젠킨슨과 헬렌버그도 역시도 마찬가지로였는데 공식적 도큐멘테이션을 강조했던 젠킨슨은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을 구분하면서 양자 모두 유지, 정리, 인벤토리 작성 등 기록관리 차원에서의 취급을 인정하지만 영구기록으로서의 가치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는 뚜렷하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기록관리기관의 역할은 기관들이 갖는 상이한 전문성 속에서 기록관리 전문성의 역할을 수행해 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이 외국 기록관리학 잡지에서 꾸려졌던 개인 기록에 관한 특별 섹션이다. 호주 아키비스트 협회가 발행하고 있는 *Archives & Manuscript*의 1996년 특집호, 캐나다 아키비스트 협회가 발행하고 있는 *Archivaria*의 2001년, 2013년의 특집호에서는 개인 기록에 특성화된 문제와 방법을 고민한 결과물로 채워졌었다.²⁾ 여기서 다루진 주제는 개인 기록의 본질과 특징, 전통적 실무인 평가, 정리와 기술 등에 대한 도전과 전략 그리고, 개인 아카이브를 보존하는 것과 관련된 윤리적·법적인 이슈들이었다(Carter et al, 2013). 그 중에서 개인 기록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는 가장 본질적인 물음으로 이는 변화하는 기록 및 기록 환경의 개념 속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제이다. 특히 본질적인 차이는 개인 기록을 실무적으로 다루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집 정책 등 개인 기록관리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있어 사전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었다.

국내에서 개인 기록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유명한 인물을 중심으로 개인에 관한 기록관을 구축하거나 관리방안을 제안한 논의들이 먼저 등장하였다. 이러한 논문들은 개인 기록의 의미를 일깨우고 개인 중심의 기록관리기관의 모델을 제안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근래에 발표된 개인 기록에 관한 논문 중에서 최인혁(2014)은 생애사 접근법을 토대로 개인 기록의 기록화 범위를 보여주었으며 심재련(2015)은 개인 기록의 성격에 특화된 활용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서동국(2015)은 개인

2) 이 특집호는 *Archives & Manuscript* 24(1), 1996; *Archivaria* 52, Fall, 2001; *Archivaria* 76, Fall, 2013으로 개인 기록의 본질과 특징, 평가와 입수, 정리와 기술, 디지털 등 전통적 실무를 사용하는 것에 따른 도전, 전략, 시사점들, 그리고 개인 아카이브를 보존하는 것과 관련된 윤리적·법적 이슈, 마지막으로 관련 프로젝트에 관한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음.

기록의 활용에 있어 스토리텔링 기법의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이들 셋 논문은 공통점은 개인 기록이 나름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는 전제를 토대로 생애사 기법, 활용, 스토리텔링 적용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의 최효진, 임진희(2015)는 개인 기록의 한 유형으로 일기 기록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개인 기록에 관한 관심이 보다 세분화된 문제 의식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 기록의 고유성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았다. 예컨대, 개인 기록을 위한 차별화된 방법은 왜 필요한 것인지, 고유한 특성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부터 관리대상인 개인 기록에 관한 본격적인 이해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개인 기록이 갖는 본질적인 특성을 규명해 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특성은 개인 기록의 고유성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 기록은 기록으로서의 특성도 갖기 때문에 기록으로서의 공통성과 개인 기록으로서의 고유성을 함께 살피고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의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우선, 조직 기록과 공통되는 원리를 토대로 개인 기록만의 고유성을 구별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록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담고 있는 표준인 15489: 2016와 개인 기록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생산 맥락, 기록관리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개인 기록의 고유한 특성은 무엇인지 고찰해보았다. 다음으로 개인 기록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성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보고자 개인을 연구하는 이론과 실제 개인 기록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의 독특한 성질인 “성격(personality)”과 관련된 이론을 검토하고 개인 기록관리에서의 적용 필요성을 검토했다. 아울러 국내의 기록관리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실제 개인 기록을 검토하여 개인적 특성 특히, 성격과 관련된 요인이 기록관리상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이 글에서는 개인 기록이 갖는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개인 기록을 잘 관리하고 활용시키기 위한 기반작업이자 특히, 개인 기록과 관련된 기록화 활동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개인 기록이 가진 특성을 다양한 차원에서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대상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기반을 토대로 세부적인 기록화의 방법과 절차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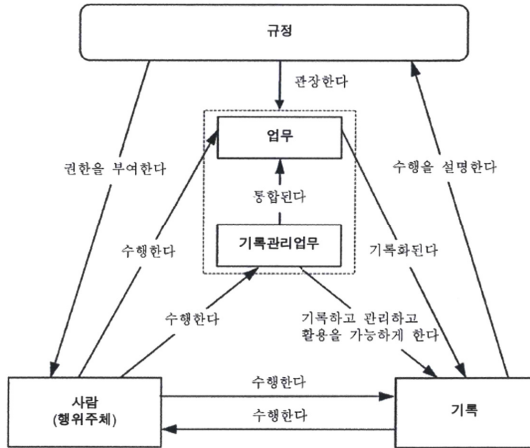
2. 개인 기록의 특성

개인 기록은 민간기록의 한 유형으로서 매뉴스크립트적인 관리대상으로 다루어져왔다. 매뉴스크립트 유형의 기록들은 조직 활동에서 생산되어 일관된 시스템 아래 관리되는 ‘조직기록’(이하, 조직기록)과는 구별되는 차이를 갖고 있다. 기록의 일반적 특성을 중심으로 개인 기록의 고유성을 고찰해보고자 이를 생산되는 맥락과 기록관리 과정 측면의 차이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 기록의 생산맥락

기록은 업무활동의 부산물이다. 기록관리의 핵심 개념과 원칙을 세우고 있는 ISO 15489: 2016에서 “기록”이란 기관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거와 자산으로 생산하고 접수하며 유지하는 정보(3.15)로 정의된다. 다음의 <그림 1>은 ISO 23081이 기록관리와 관련된 메타데이터가 생산되는 환경을 설명한 것으로 ‘기록’이 생산되는 맥락이 무엇인지를 개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ISO 23081 기록관리메타데이터의 개념적 모델



먼저 이 개념모델에 등장하는 요소들은 ‘사람’, ‘기록’, ‘규정’, ‘업무’, ‘기록 관리업무’라는 것들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다섯 개의 요소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조직에서 기록이 생산되는 메커니즘 그 자체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행위주체)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록을 생산한다. 이때, 사람과 업무는 규정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데, 규정이 부여하는 권한에 따라서 규정이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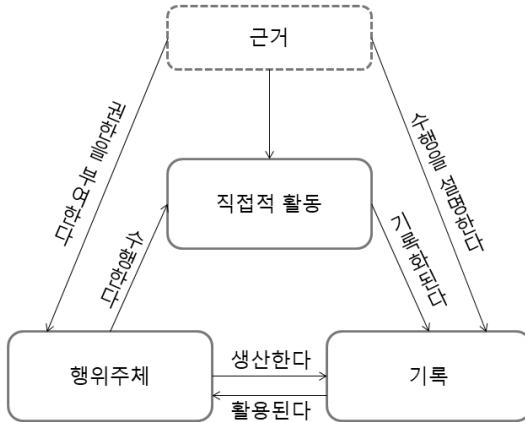
사실 23081이 보여준 이 개념적 모델은 ISO 15489의 개념을 충족시키기 위해 구현된 메타데이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를 ISO 15489의 개념을 토대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ISO 15489가 제시하는 기록관리 원칙에서는 ‘업무’, ‘규정’이 기록의 생산, 획득, 관리를 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의 바탕이 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³⁾ 또한 “기능”은 업무 활동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된 책임을 충족시키는 활동군(3.11)이고, “활동”

3) 기록의 생산, 획득, 관리에 관한 결정은 그들의 업무, 법적이고 규정된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업무활동의 위기관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은 이러한 기능의 부분으로서 하나의 사업 자체에 의해 수행되는 주된 업무(3.2)로 정의되고 있다. 이는 <그림 1>이 보여 주고 있는 '기록'의 생산은 '업무'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것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규정'의 역할이라는 개념관계와 정확히 일치한다.⁴⁾

위에서 살펴본 각 요소는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수행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단순화 할 수 있다. 즉, 사람, 기록, 규정, 업무 각각은 '행위주체', 결과물로서의 '기록', 기록 생산을 유발하는 '근거', 그리고 기록을 생산하게 만드는 '직접적 활동'이라는 역할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 개념화된 모델은 개인이 기록을 생산하는 맥락이 무엇인지를 일반적인 조직기록과의 차이를 토대로 떠올릴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개인이 기록을 생산하는 맥락이 이 개념적 모델만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우며 개인 기록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이해와 요소를 반영하여 재구성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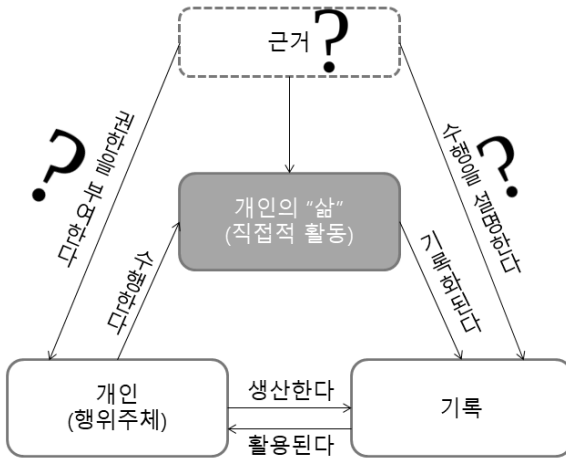
<그림 2> 기록의 생산 맥락



4) 기록이 업무를 기록화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기록에 관한 분류는 필연적으로 기능-활동을 반영하게 되며 활동의 산물로서 생산된 기록을 그 생산 맥락에 대한 기록과 연결시켜주는 도구가 바로 '업무분류체계'(3.4)인 것이다.

아래의 <그림 3>은 위의 개념을 개인 기록의 생산 맥락으로서 재구성하려고 시도한 흔적이다. 그림에 등장하는 물음표는 조직의 생산맥락과 비교하였을 때 개인 기록에 존재하는 차이를 표현한 것이다. 이 그림을 토대로 우리는 개인 기록이 보여주는 차이를 고민해 볼 수 있다.

<그림 3> 조직 기록의 생산 맥락에 비추어 본 개인 기록의 생산맥락



가장 큰 차이는 기록 생산의 근거로서 규정의 유명무실화와 그것이 초래한 효과이다. 이는 개인 기록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개인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특정 활동을 통해 기록을 생산하지만 개인이 기록을 생산하는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이것은 개인 기록은 생산 동기와 방식에 있어 어떤 행정적이거나 법적 규제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록을 생산하게 만든 핵심적인 환경요인인 ‘규정’ 부분의 역할이 개인 기록에 있어서 유명무실하게 되며 조직의 기록처럼 규정이 업무를 관장하고 생산주체에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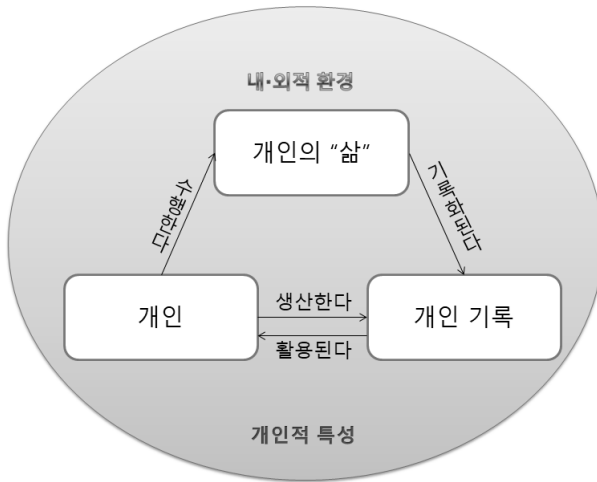
을 부여하는 관계는 애초에 형성되기 어렵다. 이는 조직에서 생산된 기록의 경우 명백히 규정과 업무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 기록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형성하게 된다.

두 번째는 기록을 생산하게 하는 직접적 활동이 '개인의 삶'이라는 특정하기 어려운 존재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개인 기록 역시 기록을 생산하게 한 직접적인 활동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조직처럼 기능과 활동을 반영한 '업무'가 기록 생산의 직접적인 활동 요인이 되기보다는 개인 기록의 경우는 개인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 전반으로서 대체될 필요가 있다. 이때 개인이 수행하는 활동의 범위는 개인의 삶 전체를 포괄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활동일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개인의 '삶'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조직의 경우 업무가 규정의 관장을 받지만 개인의 삶은 기록의 생산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관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개인 기록의 생산 맥락의 특징이자 그 파악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반적으로 업무분류체계가 기록과 기록의 생산맥락을 연결시키기 위한 도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인 기록의 경우 개인의 '삶'이 개인 기록의 생산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록의 생산맥락으로서 개인 기록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차이는 위의 <그림 3>에서는 표현되지 못한 것으로 바로 '개인'이라는 차원이 발생시키는 영향력이자 맥락이다. 사전적으로 개인(個人)은 국가나 사회, 단체 등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을 의미한다. 개인은 유일무이한 존재이지만 한편으로 개인의 삶은 개인이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만 설명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관계 속에 놓여있다. 따라서 한 개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맥락 전체를 간과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며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관계한다. 개인 기록은 기록의 생산을 관장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결과적으로 개인들에 의해 생산된다. 결국 개인에 더 주목해 그 영향력과 맥락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

인 기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생산주체이자 개인 삶의 당사자인 ‘개인’에게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조직의 기록과 달리 개인 기록의 생산 맥락은 다음의 <그림 4>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이 그림은 일반적인 기록의 생산맥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 2>와 비교한다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을 제외하고 개인 기록의 특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 개인적 특성과 개인 삶에 영향력을 갖는 내·외 맥락을 추가한 것이다.

<그림 4> 개인 기록의 생산 맥락



즉, 개인은 살면서 삶의 어느 부분에서 기록을 생산하고 활용한다. 삶 속에서 기록화 될 부분을 정하는 것은 자율의 영역이다. 우리 삶을 둘러싼 환경과 개인의 취향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될 뿐이다. 또한 그 영향 요인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이 ‘개인적 특성과 내·외적 환경’이라는 요인은 개인 기록의 생산주체인 생산자에 주목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개인과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 기록의 생산

맥락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⁵⁾

기록과 관련된 생산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기록관리기관의 입장에서는 기록들에 관한 수집, 관리, 활용에 주요한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개인 기록의 경우, 생산맥락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개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어떤’ 요인 즉, ‘개인적 특성’ 및 ‘내·외적 환경’ 과 관련된 요인들이 기록 생산의 맥락에 작용했는지를 파악해야만 할 것이다.

2) 기록관리 과정에서의 특성

기록관리 과정에서 개인 기록이 보여주는 조직기록과 구별되는 차이를 생산동기와 방식, 현행의 활용 및 관리, 기록관리 기관으로의 입수과정, 기록관리 기관에서의 관리라고 하는 관리상 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산동기와 방식

일반적으로 조직 기록의 관리에서는 기록으로서 생산, 획득되어야 할 대상을 기록 요건으로 사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업무의 필요성, 법적 규제적 요건, 사회적 집단적 기대가 중요한 범주가 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에게는 어떤 기록이 업무나 법적으로 반드시 생산되거나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시하는 어떠한 구조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의 개인 기록은 어떤 행정적인 목적이나 법적 요구사항과 같이 계획적이고 규정에 따른 특정한 업무 처리 과정에 의해 생산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 기록은 다만 자신의 필요나 편애와 같은 이유

5) 생산 맥락으로서 내/외 환경은 조직 기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기관의 기록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업무분석 활동에서 반드시 파악되어야 하는 내용 중 하나가 이러한 내/외 환경을 고려한 기록관리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다.

로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가깝다. 이를 두고 개인은 개인적 의도와 목적 즉, 그 자신이라는 맥락에서 기록을 생산할 뿐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한다(Hobbs 2010). Whittake와 Hirschberg(2001)는 개인이 단지 수집하였다는 이유로 개인 기록의 일부가 되기도 하며 정서적, 감상적 이유가 개인 기록의 생산 맥락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각 개인들은 스스로가 느끼는 유용성, 정서적이며 감성적인 측면에서 기록을 남긴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개인적 차원이 존재함을 고려한다면 개인 기록의 생산에는 개인마다의 생산 패턴이 있을 수 있음도 짐작할 수 있다. 개인 삶의 범위나 활동은 대개 개인의 생각과 의지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중에서 무엇을 기록으로서 생산한다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그것이 개인마다의 일정한 패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수집품 역시 그의 시선으로 묶여졌다는 점에서 그러한 패턴을 구성하는 일원이 될 수 있다. 기록 생산에서 개인마다의 고유한 패턴을 가진다는 것은 개인 기록이 본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며 결국 개인 기록을 일정한 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생산, 포착, 관리하는 절차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조직의 기록관리에서는 생산하고 남기는 것의 위험보다 없애는 것의 위험이 적다하여 생산하지 않고 폐기하는 문화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기록관리의 근대화에서 중요하였다. 그런데 개인의 기록 생산에서는 의도적인 폐기 보다는 개인의 성향이 그 생산, 관리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 이 개인의 성향이란 바로 개인이 기록을 생산하게 하는 동기이자 생산된 개인 기록이 가질 수 있는 가치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2) 현행의 활용 및 관리

생산된 기록을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직은 기록관리 체계를 수립하

여 운영한다.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생산된 기록은 조직 업무에 필요한 활용이라는 일차적인 목적을 갖고 있으며 조직의 기록관리 체계의 수준에 따라 일관된 관리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조직은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기록요건을 설정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업무분류체계, 접근 및 허가규칙, 처분권한, 메타데이터 스키마 등의 다양한 통제도구를 설계한다. 이러한 기록 통제 도구들은 기관 입장에서는 권위 있는 기록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조직이 보유하는 기록은 일관된 체계에 따라 현행에서 관리되며 업무적 필요에 따라 활용 및 재활용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 기록은 기록관리 기관으로 수집이나 기증을 통해 입수되기 전에는 전적으로 개인의 통제 아래에 놓여있다. 따라서 관리, 활용되는 방식도 전적으로 개인에 의지하며 개인차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개인 기록에 있어 현행 단계에서의 활용이나 관리는 개인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다양한 수준을 유지하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효율적 측면의 접근과 보유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가깝다.

(3) 기록관리기관으로의 입수과정

조직 기록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관되는 것이라면 개인 기록은 기록관리기관으로 기증, 수집되는 존재이다. 개인 기록이 기관이나 지침에 근거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기획에 의해 수집, 기증된다는 특성은 입수과정에 차이를 야기한다. 먼저, 수집대상의 선정은 일종의 특별한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집에 관한 협의과정에서도 수집기관의 성격, 수집담당자가 기록에 갖고 있는 전문성과 기록에 대한 애착, 친밀감이 기록관리기관으로의 입수과정을 지배하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 기록이 기증·수집되는 과정에서 수집담당자는 기록에 대해 내용적으로도 친밀감을 가질 수 있으며 기증자와 그의 인성을 직접 겪으면서 과정을 진

행함으로써 이 과정의 경험이 이후 기록에 대한 기술 등 업무를 처리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Hobbs는 기증이란 업무는 감정적인 처리행위이고 민감한 아키비스트는 개인이 가진 개성의 일부를 이 과정에서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Hobbs 2001, 132-133).

또한 기록관리 전문가는 개인 기록의 관리과정에서 생산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조직기록 관리에서 보존기관의 기록관리 전문가와 생산기관과의 관계가 엄격하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조직적 맥락에서 기록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확보 작업을 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했을 때, 개인 기록의 관리자로서 수집기관의 기록관리 전문가는 입수과정에서부터 생산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록의 맥락이 될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더 획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습득된 정보는 추후 관리와 활용의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4) 기록관리기관에서의 관리

기록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 기록이 조직기록과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기록군의 구조와 내용이다.⁶⁾ 조직에서 생산된 조직 기록군은 지적·논리적 체계로서 생산기관의 업무 기능, 활동에 존재하는 계층과 질서를 내용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아카이브는 조직 기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 생산기관의 역사와 변화를 이해하고 기록을 관리하는데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인 기록군은 수집, 기증의 단위로 관리되며 이때 ‘개인’이 기록을 관리하거나 서비스하는 최상위 단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구조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개인에 관한 문서들은 대학, 정부기관, 민간기

6) 여기서 말하는 기록군이란 하나의 조직이나 가족, 개인이 생산·수집한 전체 기록을 말함(기록학용어사전 2008).

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관리되는 경우가 많고 조직 기록처럼 체계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나름의 유기성과 순서성은 존재한다.

한편,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개인 기록은 생산자로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수행한 다양한 기능, 활동이 담겨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개인 기록은 개인의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개인의 내면적인 부분 즉, 개인의 견해, 의견, 편견 등 감정적 반응도 포함하며 오히려 개인의 활동을 넘어 개인의 내면을 담고 있을 때 그것이 기록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Hobbs는 개인 기록은 개인만의 문서류 패킷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개성과 내적 투쟁이 표현되어 있다고 하였는데(Hobbs 2001) 이를 고려한다면 개인에 관한 기록 군은 개인의 삶과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조직화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개인 기록군에 있어 표면화된 개인의 삶과 인간관계를 넘어서 개인의 개성과 내적 투쟁을 어떻게 기록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어려운 숙제에 가깝다. 하지만 이를 기록군에 관한 맥락으로서 확보해야만 개인 기록군의 가치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기록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 기록의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개인 기록은 기록 생산의 의도와 방식, 활용 및 관리에 있어 법적인 규정에 의하기 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의 영향아래 놓여 있다. 또한 기록관리기관으로의 입수과정에 있어서도 개인적 태도와 성향은 입수여부, 입수 조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기증자 및 기록과 기록관리자간의 관계가 이후의 기록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기록관리기관이 소장하게 된 개인 기록군의 내용과 구조 역시 개인 나름의 논리적 체계를 가지며 개인적 특성을 잘 밝히는 것이 기록 군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주요한 열쇠가 된다.

〈표 1〉 기록관리 과정에서 개인 기록과 조직기록의 차이

| 구분 | 조직 기록 | 개인 기록 |
|-------------|--|--|
| 생산동기와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활동의 처리행위를 기록으로 생산 ■ 기록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록을 생산, 획득 ■ 기록생산시스템이 존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의도, 목적에 따라 기록을 생산 ■ 기록생산을 지시, 통제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음 |
| 현행 활용 및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적 활용 및 재활용 ■ 업무관리방식을 적용하고 기록관리 시스템 내에 존재해야 함 ■ 기록 요건을 보호하기 위한 접근통제, 저장, 재사용, 변환과 이동 등 적합한 행위를 취해야 함 ■ 정책을 개발, 실행하고 책임을 부여 준수시켜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동기에서 활용 및 관리 ■ 개인에 따른 관리 방식 적용 ■ 예> 스스로가 느끼는 유용함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기록을 활용하거나 보유함 ■ 예> 정서적이거나 감성적인 측면에서 기록을 남기기도 함 |
| 입수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내 규정에 따라 현행 레코드 매니저의 역할과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분담하여 수행 ■ 상호작용의 내용이 현용, 준현용, 비현용의 과정에서 모두 발생하고 생산자도 일정한 책임을 부여받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키비스트는 현용가치가 사라진 기록에 대한 관리권,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다수 ■ 아키비스트와 생산자(기증자) 사이에는 수집(기증) 당시 이후로 상호작용이 집중되어 있음 ■ 수집(기증)과정에서 아키비스트의 개인 특성에 관한 파악 역량이 요구됨 |
| 기록군의 구조와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체계 구조를 반영 ■ 업무활동에 관한 내용 ■ 업무분류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구조 없음 ■ 개인의 외면적 내용 보다 내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기록이 더 중요 ■ 개인 특성이 간여할 여지가 큼 |

3. 개인 기록과 성격

개인 기록의 고유한 특성은 생산자에 더 많은 주목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Hobbs는 개인 기록은 개인의 인생과 인간으로서 개성을 담은 문서들

을 포함하고 있고 그들의 기록은 개인의 성격과 내적 투쟁의 표현이기 때문에 보다 생산자에 주목해야 한다(Hobbs 2001, 126-128)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개인 기록은 외적으로 표현되는 개인의 삶과 인간관계를 넘어서 개인의 개성과 내적 투쟁까지를 담고 있으며 이를 맥락으로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외적·내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성격연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⁷⁾ 개인은 기록 생산자이자 기록관리 기관으로 입수되기 이전까지는 관리자이며 또한 기증자이다. 이러한 개인의 성격은 기록관리의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1) 성격과 개인차

성격(性格)은 사람이 지닌 성질이다(보리 국어사전 2013).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개인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성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심리학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는데 사람마다 다른 행동방식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적 접근방법과 광범위한 연구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성격에 대한 관심은 주로 심리학적 연구대상이었는데 학문적으로는 1930년대 이후 성격심리학(Personality Psychology)이라고 하는 세부 분야가 확립되었다고 보고 있다(홍숙기 2014, 6). 성격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성격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감정, 사고, 행동의 일관된 패턴을 설명해주는 그 사람의 특징들”(Pervin & John 1997, 4)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Liebert와 Liebert(1998)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iebert & Liebert 1998, 5-6).

7) 쉘렌버그 역시 기록의 정보적 가치를 평가는 다양한 학문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유용성은 역사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지리학자, 순수하게 물리적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 과학자, 그리고 순수히 인간에게 관심을 가진 계통학자와 같은 모든 종류의 학문의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성격은 한 특정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징들의 독특하고 역동적인 조직으로서, 이 특징들은 사회적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한 행동과 반응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특징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그 특정인에게 전적으로 독특하고(기억, 습관, 버릇 등) 어떤 것들은 소수 또는 다수 또는 모든 타인들과 공유된다.”

이러한 정의들에서 주목할 부분은 성격은 개인 가질 수 있는 독특하고 구별되는 특징이라는 점과 이러한 특징들은 어떤 부분 기능이 아니라 그 개인에 있어서 감정·사고·행동, 신체적·심리적 특징들과 같이 전인적(全人的)인 기능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성격이란 개인마다 독특하며, 개인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요인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성격심리학에서는 성격이 보유하는 독특함을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 個人差)”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⁸⁾ 홍숙기는 개인차야말로 성격 개념에 있어 고유영역이자 초점이라고 하였으며 개인이 가진 특징들은 하나의 기능체계로서 패턴이나 조직화를 통해 더 분명히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홍숙기 2014, 7-8).

오랜 시간동안 학문적으로 분화를 이루어나갔기 때문에 성격심리학에서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성격의 결정 요인과 결정 과정에 있어 서로 다른 주장이 있다.⁹⁾ 대체로 성격 이론에서 포괄하는 영역은 <표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격 연구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홍숙기 2014, 14).

8) 예컨대 같은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르게 행동한다든지, 사람마다 전형적으로 처하는 상황이 다를 때(예컨대, 어떤 사람은 번번이 사기를 당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번도 그런 일을 안 당한다) 우리는 개인차를 본다(홍숙기 2014, 8).

9) 학자에 따라 성격이론을 구분하는 범주는 다양하며 크게 정신역동 접근, 인본주의-현상학 접근, 성향-생물학 접근, 행동주의-학습 접근, 인지-정보처리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 성격 연구의 주요 대상

| 구분 | 주요 내용 | 예시 |
|--------|-------------------|--|
| 구조 | 성격의 기본 단위들 | 반응, 습관, 특성, 유형 |
| 과정 | 성격의 역학과 동기 | 긴장감소, 성숙과 자기실현 |
| 성장과 발달 | 개인차와 개성의 발달 | 유전과 환경의 영향력, 환경 요인 들로서 문화, 사회계층, 가족 |
| 정신병리 | 성격 기능장애의 본질과 원인들 | |
| 변화(치료) | 병적인 행동들을 변화시키는 방법 | |

또한 성격은 조직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조직이론(組織理論 organization theory) 속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은 독립된 개별적 존재이다. 그러나 개인은 조직 내 인간 즉, 조직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직을 알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개인의 성격은 조직기록 관리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조직이론에서는 개인의 성격을 개인차를 유발하는 요인이자 직무수행의 동기이자 영향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조직을 체제론적(systems approach)으로 보는 관점에 따른 것이다.¹⁰⁾

개인의 성격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렇게 개인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많은 관심을 들이는 이유는 성격이 개인을 설명해줄 수 있는 유용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성격은 비교적 변함이 없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사람들의 성격 특질은 일생동안 더욱 한결같아진다(Roberts et al, 2008)고 보는 것

10) 조직이론은 조직현상과 그에 연관된 요인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기술·설명·처방하고 처방의 실천수단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조직이론에서는 조직 내 인간의 업무 행동유발에 작용하는 요인으로 성격, 지각, 태도, 감정, 조직문화를 주요하게 다룬다. 한편,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총체적·학제적 접근방법으로 모든 현상을 보다 상위의 포괄적인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파악하여 통합적 분석을 시도하기 때문에 총체적 접근방법이라고 한다. 1950년대 이후 조직연구활동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주된 기반은 일반체제이론(general systems theory)이다. 체제론적 관점에 따르면 조직은 인간, 목표, 구조, 과정, 그리고 투입과 산출을 주고받는 환경과의 관계로 범주화할 수 있다(오석홍 2014, 46-50).

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성격학에서는 개인의 일관성과 패턴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는 기록 관리에 있어서도 일정한 역할을 가질 수 있다.

2) 개인 기록 관리와 성격의 역할

개인 기록은 개인이라는 자율성을 가진 생산주체의 독특한 특성이 생산 맥락, 기록관리의 과정 모두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 생산자가 보유하는 일관된 패턴으로서 성격은 그의 개인적 특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개인이 생산하고 유지하다가 특별한 결정에 의해 이 기록들을 소장하게 된 기록관리기관은 이 기록들을 잘 수집, 관리하고, 활용시켜야 하는 임무를 갖는다. 그들에게 있어 성격은 개인 기록을 잘 이해하게 해 주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전략을 세우는데 기여한다.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하였을 때 개인 기록을 관리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에 보유하는 '성격'이라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첫째, 관리대상인 기록의 생산자, 관리자 혹은 기증자인 개인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기록이 생산, 관리, 기증되는 배경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성격이란 개인의 감정, 사고, 행동이 조직화되어서 나타난 것이고 생산주체인 개인이 갖는 고유하고 독특한 특성은 개인의 삶 전반에서 개인의 내면과 외적 활동 모두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성격은 기록생산의 동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습관이나 특성, 개인차와 개성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기록이 어떻게 유지되거나 혹은 유지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줄 수 있으며 특정 기록관리기관으로 기증되게 된 것 역시도 이러한 개인의 성격과 관련지을 때 설명될 수 있다.

둘째, 성격은 개인에 관한 본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은 개인에 관한 중요한 기록들을 선별하는 기준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개인 기록은 개인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정보원 중의 하나이며 성격은 개인에 관한 가장 생생한 정보이다. 개인 기록 안에는 개인의 공식적인 처리행위 뿐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의 증거가 담겨 있으며 개인의 특이성이나 매일의 개인적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에 뛰어난 정보원이 된다. Hobbs는 이용자들이 개인 기록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 이유는 기록에 담겨 있는 특정 사실과 날짜, 개인의 역할이나 기능적 맥락을 넘어 그 속에 담겨 있는 인간의 이야기와 개별화된 개인의 특성을 기록들로부터 찾고 싶어서일 것이라고 하였다(Hobbs 2001). 이미 성격심리학의 연구 과정에서 개인 기록은 다양하게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성격 연구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지는 자료는 연구과정에서 직접 생산되는 자기 보고 자료(self report data)이며 이 밖에 개인의 작품, 편지와 일기 등의 기록 등도 성격 연구에서 중요하게 사용된다.¹¹⁾

개인 기록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중요한 개인 기록이 누락되거나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개인에 관한 중요한 기록을 선별하는 기준에 빈틈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낙서와 같은 것은 종종 보존할만한 기록이 아니라고 취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은 개인 기록에서 단순한 낙서가 의미 있는 경우는 꽤 많다. Craig는 개인 기록의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아키비스트가 수집활동과 평가에 있어 모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Craig 2001)고 하였다. 개인의 성격에 관한 탐구를 통해 개인에 관한 본질적인 정보가 제공된다면 기록의 선별에 필요한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게 되고 또한 개인

11) 성격연구 자료의 범주(Block 1993).

- L (life-record data) 생활기록, 생활사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병원 진료기록)
- O (observer ratings) 관찰자 평정, 부모 교사 배우자 친구등이 한 평정
- T (Objective tests) 실험 등 표준화된 검사 수행자료
- S (Self report data) 자기 보고 자료

기록의 선별을 위한 기준과 세부 요인도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개인 기록의 가치는 생산자 개인이 보여주는 독특한 관점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개인 기록의 중요성은 어떤 활동에 대한 처리행위성 보다는 개인의 독특함이 빚어내는 다양한 가치의 발견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개인 기록의 가치가 개인이 사회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기능, 활동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아울러 개인의 내면을 깊이 있게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Hobbs는 개인 필터(personal filter)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의 특성이 개인 나름의 고유성을 띠고 사회적 관점을 읽어내는 유용한 수단(Hobbs 2001, 126-128)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개인 기록에 담긴 독특한 관점이 그 가치를 배가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인의 내면적 성격이 가미된 개인 필터를 통과하면서 개인 고유의 독특한 사회상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이 어떤 필터를 가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성격을 이해하는 것과 흡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하여 의미 있는 기록을 선별해내고 또한 해당 기록의 의미, 맥락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개인의 활동과 특성들이 파악될 수 있고 이는 구체적인 개인 기록화의 범주를 보여줄 수 있다. 이용자가 개인 기록을 찾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그것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 보다는 어떤 느낌, 관계, 특성을 알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인 기록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모아질 필요가 있다(Hobbs 2001, 130-131). Hobbs는 개인 기록에 대한 연구적 접근(도큐멘테이션 전략 등)을 통해 개인의 외적 활동 뿐 아니라 내면적 인간성도 함께 기록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인 기록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모아질 필요(Hobbs 2001, 130-131)가 있다는 것이다. 성격 연구는 이러한 연구적 접근을 가능케 하며 개인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가

능케 한다. 성격에 관한 연구의 관심사는 개인이 어떤 사람이고(특징, 특징의 관계), 어떻게 그렇게 되었고(어떤 요인이 그것을 결정했나, 유전, 환경),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지(동기, 무엇을 위해서인지)를 알고자 한다(홍숙기 2014). 따라서 성격연구의 과정을 통해 개인의 외적 활동과 내적인 동기들을 함께 다룰 수 있고 이는 개인에 관한 기록화 활동에 있어 기록화의 범주, 요소를 결정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성격이란 개인별로 일관성과 패턴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기록관리기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록 생산 및 관리, 수집·기증과정 그리고 활용 과정에서 기록을 이해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기록화가 요구되는 다양한 상황 즉, 수집하거나, 수집된 기록군을 확장시키거나 유관 기록군과의 연계 등 필요에 따라 기록 군을 보다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대상 영역의 범주와 요소를 결정짓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개인 기록의 사례

개인을 이해하는 것이 왜 기록군의 이해에 중요한지는 실제 기록군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기록관리기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개인 기록 중에서 수집경위 등이 문서화 되어 있고 방문, 열람 등을 통해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두 개의 사례를 <표 3>과 같이 임의로 선정하였다. 각 사례검토는 먼저 관련 문헌과 해당 기관 연세대학교 기록보존소(<http://web.yonsei.ac.kr/archives/>)와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http://archive.history.go.kr/>) 온라인 서비스를 조사하여 개인 및 기록에 관한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한 다음 직접 방문하여 해당 기록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표 3〉 사례분석 대상

| 개인명 | 소장기관 | 기증 시기 | 전체량 | 직업 | 소장기관 유형 |
|-----|---------|-------|--------------|-------------------|----------|
| 김윤경 | 연세대학교 | 1973 | 112(철) | 대학교수 | 사립대학 |
| 로광욱 | 국사편찬위원회 | 2002 | 사료철 4,789(철) | 재미 통일운동가, 치과의사 | 사료수집편찬기관 |

1) 연세대학교 기록보존소 『김윤경 교수 기록』

연세대학교 기록보존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김윤경 교수 기록은 개인이 직접 생산하고 수집한 기록 및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후에 가족들에 의해 기증된 것이다. 연세대학교 기록보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김윤경의 기록의 현황은 다음의 〈표 4〉와 같은데 개인 기록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일기, 금전출납부, 노트 등이 주요한 유형이다. 이는 수량으로만 본다면 115건(철)로 뒤에서 살펴볼 로광욱 기록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규모이지만 독특하고 내용적으로 풍부한 개인 기록이다.

〈표 4〉 김윤경 기록 소장 현황

| 유형 | 건수 | 생산연도 |
|-------|-----|-------------|
| 일기 | 93 | 1912~1969 |
| 금전출납부 | 10 | 1923~1969 |
| 노트 | 5 | 1918, 미상 다수 |
| 간행물 | 5 | 1915~1968 |
| 기타 | 2 | 1951~1967 |
| 합계 | 115 | |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김윤경 교수 기록의 목록은 철(건) 수준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이 연세대학교 기록보존소에 소장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김윤경의 기록에 관한 배경맥락들은

기록보존소의 아키비스트를 비롯, 김윤경과 관련된 여러 문헌을 통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¹²⁾ 이를 토대로 김윤경이 누구이고, 그의 기록이 어떻게 기록보존소에서 관리되게 되었으며 김윤경 기록의 특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윤경 교수는 1894년 경기도 광주에서 출생하였고 연희전문학교, 동경 입교대학 문학부 사학과(동양사 전공)를 졸업하였으며 연희전문학교 교수, 국사편찬위원, 학술원 종신회원, 연희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하였다. 그의 아호는 ‘한결’로 국어학 연구의 선구자로 특히, 조선어학회 사건, 동우회 사건 등 독립운동과 4.19 혁명, 한일회담 반대투쟁 등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가 수많은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세대학교 기록보존소가 관리하고 있는 김윤경 교수의 장서와 일기는 유족에 의해 도서관에 기증된 것을(1973년) 기록보존소가 설치된 후에 이관 받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기증이 이루어진 경위는 회고록에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고 당시 선생이 작성하신 일기 중에 현존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당분간 공개치 않고 최대 20년 후에 공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한결 김윤경 선생 기념사업회 1979, 42).

김윤경 교수의 기록의 특성은 그의 개인적 인생의 전반을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의 개인적인 성품이 그의 기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선생의 아호는 ‘한결’이었는데 이 아호가 얼마나 선생과 잘 어울렸는지는 만아들 학현, “나의 아버님”에 잘 나타나 있다(한결 김윤경 선생 기념사업회 1979, 260).

“어느 선생님이 지어주셨는지 아버님 아호로 ‘한결’은 참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아버님 성품과 인생관이 ‘한결’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12) 십주기를 맞이하여 김윤경 선생을 회고하는 다양한 지인, 친구, 제자, 가족들의 회고문을 엮어서 간행한 회고록과 선생의 글들을 묶어서 펴 낸 전집(7책으로 구성)이 있다.

아버님이 일기를 쓰시기 시작한 것은 의법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을 작별하시던 날까지 병중으로 인사불성이든지 동우회 사건과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생활을 하시던 때만 빼놓고는 단 하루라도 뻘 날이 없다. 또한 동시에 금전출납부에 교육비, 생활비, 교제비 등 세밀하게 1전도 빠지 않고 일생을 통해 기록되고 있다. 참 한결같은 일이었다.”

국어사전에서 “한결같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지지 않고 꼭 같다(보리국어사전 2013)는 뜻으로 설명된다. 그의 아호처럼 선생은 참으로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그의 이런 성품은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렵게 공부하고 일생동안 가난한 선비생활을 하였던 영향으로도 보이는데 그에게는 꼼꼼하고 낭비 없이 근검절약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다. 한결 선생의 장남은 그의 한결같은 성품에 대하여 “평생 술·담배를 하지 않았고 도보로 왕래하는 습관”이 있었으며 “아무리 추운 날이나 더운 날에도 택시를 타지 않고 버스 통근을 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의 이런 성품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변함없었는데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을 철저하게 검토”해 주는 것은 물론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단 일분의 지각이나 단 한번의 결강도 없이 수업을 진행”하였던 것이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하였다. 특히, 김윤경의 기록 중 그의 일기는 연세대학교 80년사를 편찬할 때 사용될 정도로 내용이 충실한데 그의 이러한 한결같은 성품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1931년(한결 김윤경 선생 기념사업회 1979, 55-56)

1. 10 : 너무 추워서 조선어 연구회에 못갔다(3시 조선어 연구회 총회)
- 11 : 어제 조선어 연구회 결의
 - (1) 간사 이 극로, 최 현배, 장 지영
 - (2) 회 이름 조선 어학회

(3) 금년 통일할 일

(ㄱ) 문법

(ㄴ) 철자법

(ㄷ) 상용 한자 조사 제한

(ㄹ) 서양말 자모와 고유명사를 한글에 맞추어 정함

(ㅁ) 한글 가로 쓰는 법을 정함

21 : 조선어학회에서 전번 총회에서 금년 안으로 정돈하려는 일의 하나인 한자 조사위원으로 추천하였다고

24 : 오후 3시에는 조선 어학회에 갔다. 한 시간이나 에누리하여 4시 넘은 뒤에 열리었다. 먼저 한자 제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 (1) 상용한자 제한 (2) 특용 한자 제한론이 나다가 (3) 한자 폐지론(더욱 주 요한 군)이 성하게 되자 다음 한자 위원만이 모임에서 토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 외국어음 조사 문제에는 (1) 세계 성음표로 한글 대조할 일 (2) 원음대로 새 부호 제정하자 우리 말대로만 하자(이 광주 기타 다수) 들이 말이 났으나 그것은 조선 어학회에서 세계 표준 문자와 대조만 하여 각 국어 위원에게 넘기기로 하였다(6시 폐회)

그의 성품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기록이 바로 금전출납부이다. 한결 선생은 매일 일기 뿐 아니라 금전출납부까지 적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의 꼼꼼함, 성실함, 완벽함, 근검절약과 같은 성향 탓에 가족들 특히 부인은 매우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장녀가 기억하는 한결 선생은 한결같은 성품에 엄하신 분이였다.

“...전교생의 일기를 한 자도 빠지 않고 다 읽으십니다. 철자법 하나 하나도 다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끝에는 반드시 평을 써주십니다. 그러자니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고 고되시겠습니까.

한편, 집안일도 틈틈이 기다리고 있지요. 대강 하시면 편하실 것을! 금전출납부를 쓰실 일이 기다리고 있던 말입니다. 일원이 틀려도 찾아

내서야 직성이 풀리십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물건 값을 일일이 주워 섬겨야 합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기억을 짜 내시느라 골치를 앓으셨지요…”(맏딸 숙임, “우리 아버님”)

또한 그는 관계했던 잡지나 신문은 창간호에서 폐간된 날까지 단 한 장도 빠지 않고 모아두었다고 하니 그가 작성하고 모은 기록 및 자료들은 그의 성품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이것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의 나이 57세에 겪었던 6.25는 그에게서 소중한 기록 및 자료들을 대부분 망실시켰던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겨져 있다(한결 김윤경 선생 기념사업회 1979, 103).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김윤경 기록은 개인의 한결같은 성품이 기록의 생산 동기나 맥락에 있어 중요한 배경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그가 일생동안 성실하게 작성한 기록 안에는 공적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인의 주관, 취향이 가감 없이 표현되어 있어 개인의 필터로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 어느 잡지에 실렸던 다음과 같은 소개의 글은 이 기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의 기록은 우리 사회를 풍부하게 구성하게 해줄 흥미로운 개인 기록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의 성격은 남겨진 기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임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기록들을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

“어느 국어학자가 남긴 1912년부터 1969년까지의 일기. 개인의 일상사와 학교의 크고 작은 일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해방 직후 맞춤법 표기를 둘러싼 국어학계의 논란을 비롯해, 이를 테면 국어학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이원규 2008).

2) 국사편찬위원회 『로광옥 컬렉션』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로광옥 컬렉션은 로광옥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집한 기록 및 자료들로 구성된 개인의 기증 자료군이다. 이를 생산 주체별로 구분하면 북한 생산 자료, 미주 생산 자료, 일본 생산 자료, 개인 자료로 나눌 수 있으며 주로 단행본, 잡지, 신문, 팜플렛, 문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로광옥 컬렉션』이라고 이름 붙여 이를 서비스하고 있다. 다음의 <표 5>는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술 정보 중 일부로서 로광옥컬렉션은 총 25상자(상자크기 14*14*14인치) 분량으로 13개의 사료 계열로 구분하여 컬렉션부터 건 수준의 목록까지 제공하고 있다.

<표 5> 로광옥 컬렉션의 서비스 현황

| NO | 사료계열 | 기록철 |
|----|---|-------|
| 1 | Rowe Kwang Wook Collection: Books | 1621 |
| 2 | Rowe Kwang Wook Collection: Videos-VHS | 9 |
| 3 | Rowe Kwang Wook Collection: Sound Recordings-Tapes | 87 |
| 4 | Rowe Kwang Wook Collection: Sound Recordings-Phonorecords | 99 |
| 5 | Rowe Kwang Wook Collection: Archives/Manuscript | 372 |
| 6 | Rowe Kwang Wook Collection: Clippings | 193 |
| 7 | Rowe Kwang Wook Collection: Misc | 15 |
| 8 | Rowe Kwang Wook Collection: Music Scores | 491 |
| 9 | Rowe Kwang Wook Collection: Pamphlets | 106 |
| 10 | Rowe Kwang Wook Collection: Theses/Dissertations | 19 |
| 11 | Rowe Kwang Wook Collection: Photos | 18 |
| 12 | Rowe Kwang Wook Collection: Maps | 6 |
| 13 | Rowe Kwang Wook Collection: Journals/Serials | 1753 |
| 전체 | | 4,789 |

로광옥 컬렉션은 온라인으로 기술정보 및 사료이력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기록과의 관계가 충분히 서술되고 있지 못해 이것만으로는 기증자료와

로광욱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로광욱이 수집한 자료들은 문서 유형 외에도 단행본, 신문 등 그가 제작하였거나 특별한 이유로 입수한 자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언뜻 보기에 왜 이런 기록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다행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된 별도의 자료에 수집자가 작성한 수집의 자세한 경위가 밝혀져 있다. 여기서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로광욱과 그가 기증한 기록의 수집 경위를 검토한 뒤에 로광욱 컬렉션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¹³⁾

로광욱은 1922년 평안남도 남포에서 출생하여 평양 광성고보와 경성치과 의전을 졸업하였으며 서울치대 전임강사를 역임하였다. 이 기간에 그는 독창회를 수차례 열고 성악가로도 활동했으며 비평 활동을 통해 평론가로도 활동했다. 1953년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워싱턴 DC에서 최초로 개업한 한인 치과의사가 되었으며 워싱턴 지역 한인회장, 전북미주조국통일동포회의 공동의장 등을 지냈다. 이 내용을 보았을 때 그가 사회적으로는 치과의사, 음악가, 비평가, 민주·통일운동가로서 활동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기증사료 안에 이 활동과 관련된 흔적들이 담겨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 컬렉션의 수집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장기관의 사료수집 활동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근현대사와 관련된 국내·외 기록을 수집,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는 2001년 “해외 소개 한국사 자료 수집·이전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국사편찬위원회의 국외의 사료 조사·수집 활동을 본격화되었는데 로광욱 컬렉션은 바로 이 사업의 결실 중 하나이다. 로광욱 컬렉션이 2001년 국사편찬위원회에 기증될 수 있었던 데에는 해외 사료 수집 차 미국 NARA에 파견되었던 국사편찬위

13) 이 자료들은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된 것으로 이 기록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자료는 세 가지로 먼저, 로광욱이 6·15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특별기획으로 역사비평에 발표한 “나의 평양행과 미국에서 본 정상회담”은 그의 통일 운동 활동과 그에 대한 견해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나머지 두 개의 자료는 사료 수집을 담당했던 정병준이 작성한 해제와 관련 문헌이다.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盧光郁 기증사료의 해제·목록”, “김용중의 생애와 통일 독립운동” 이들 두 개의 문헌을 통해 사료의 수집·기증 경위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원회 직원의 노고가 컸다.

수집자는 연구자이자 국사편찬위원회의 당시 직원이었던 정병준으로 기증자인 로광옥과는 그 이전부터 개인적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관계는 기증이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인 1995년에서 시작된다. 당시 로광옥은 12상자(32*26*60) 분량의 김용중 문서를 역사문제연구소에 기증하였다. 이는 김용중이 자신의 자료를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로광옥에게 맡겼던 것으로 로광옥은 이를 30년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인 박원순을 통해 역사문제연구소를 알게 되었고 김용중의 활동이 후학들의 손에 의해 새로 조명되길 희망하는 마음에서 본인이 소장한 자료를 조건과 제한 없이 모두 연구소에 기증한 것이었다. 당시 대학원생이던 정병준이 이 문서의 해제를 작성하게 되면서 로광옥과의 인연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병준은 국사편찬위원회에 근무하게 되었고 미국 NARA로 파견을 나가면서 로광옥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 때 로광옥은 본인 소장하고 있는 자료 및 문건, 서한의 처리문제를 그에게 상의해왔고 로광옥 자료의 기증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정병준에 따르면 20여 차례에 걸쳐 그의 집을 방문하여 기증자료를 분류, 목록화 하였고 매주 1~2차례의 목록 작업의 과정에서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집안의 자료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초기 예상보다 훨씬 양과 내용이 탁월한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기증 과정에서 기증대상 기관과 기증자료의 프라이버시 처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다. 먼저 기증자들은 자료의 기증을 정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아닌 민간기관을 하길 희망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 정부와 기증자들 간에 얽혀있는 감정적인 문제 때문이었으며 이에 대한 정병준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다.

“1970년대 이후 한국정부와 언론, 주미한국대사관 등이 자신들을 친북인사로 매도, 사찰, 공작, 비난해왔다는 피해의식 때문이었다. 특히,

부인은 한국정부에 대한 감정과 아울러 호의로 자료를 보내주었던 북한에 대한 생각 때문에 정부기관 자료기증에 미온적이었다”(정병준 2001).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이 특수 자료인 북한자료를 민간기관이 다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국사편찬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자료 보존, 열람, 이용이 가능한 기관이라는 설득을 통해 기증은 성사될 수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주로 개인 기록 등에 담겨 있는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자료가 오래 방치되어 있었고 내용 중에 개인적 혹은 가족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섞여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증자료 총목록을 작성하고 내용을 검토한 후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자료를 제외하고 기증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기증 작업을 진행하고 공개 조건에 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¹⁴⁾

로광욱 컬렉션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로 이 기록군은 개인의 삶과 함께 그의 사회정치적인 삶이었던 독립운동, 통일운동,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그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내용적으로 로광욱 컬렉션에 있는 기록들은 그의 본업인 치과의사 활동 보다는 주로 민족·통일 활동과 관련되어 생산, 수집된 것들이 주를 이룬다. 이들이 생산·수집된 동기를 살펴보면 북한 자료는 북한에서 보내온 것이며 미주 자료는 미주에서 통일운동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 활동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자료의 비중은 분량으로 보아도 큰데 북한자료, 미주자료의 순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며 특히, 북한에서 생산된 내부 및 대남선전전용 간행물과 미주 민주화운

14) 현재 로광욱 컬렉션은 온라인으로 목록이 제공되고 있고 국사편찬위원회 열람실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원본을 직접 열람, 복사할 수 있다. 아직도 다수의 기록관리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의 방식으로 기록을 서비스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이 기증 자료에 대한 접근이 공평한 방식으로 수월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증과정에서 이루어진 선택이 당시로선 현실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동·통일운동 관련 단체들이 간행한 정기간행물·기관지·문건들이 희소성과 아울러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있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 번째로 로광욱 컬렉션에 있는 개인 기록들은 그의 개인적, 사회정치적 삶과 연관된 다양한 개인들과의 교류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윤이상 부부와 로광욱 부부간의 인간적 교류가 남겨진 서신들은 매우 인상적으로(『로광욱 서신: 윤이상 서신 및 관련 문건철』) 이를 읽고 있으면 로광욱 내외가 사람을 잘 대접했고 다정한 성품의 부인과 온화한 로광욱의 품성이 떠오른다. 꽤 오랜 기간에 걸쳐 있는 이 서신들은 새해인사, 미국과 독일에 각각 살고 있었던 그들이 서로를 방문한 후에 보낸 후기, 윤이상의 공연, 노년의 이야기, 국내외 정세에 대한 소감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이상 내외는 한 장의 편지에 위 아래로 공간을 나누어 뽁뽁하게 각자의 소식을 전하는 애뜻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통 수신자는 “로광욱과 효숙 씨”로 발신자는 “윤이상과 수자”로 표현되어 있어 그들의 친밀함을 엿볼 수 있다.

또, 리영희 교수와 주고받은 서신들도 주목된다(『로광욱 서신: 리영희 철』). 1988년 1월 25일로 날짜가 되어 있는 리영희 교수가 보내온 첫 편지는 그들의 첫 만남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후 로광욱은 북미주조국통일동포회의 97 연차대회에 리영희 교수를 초청하여 주제발표를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 공문과 그 안에 찍혀있는 공동대표 로광욱의 직인을 보면 이들의 교류는 공적 활동에서부터 개인적인 친분 사이를 넘나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나누었던 화제는 통일·민주화운동에서부터 리영희 교수의 건강문제, 퇴직과 전원생활에 대한 소회, 국내 정세까지 여러 방면에 걸쳐 있었다.

이러한 맥락들을 검토한 후 다시 본 로광욱의 자료들은 그의 인생과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특히 그의 기록에서 파악된 그의 성격을 통해 그가 남긴 기록들의 의미가 더욱 풍성하게 이해될 수 있었다.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에 나타난 로광욱은 매우 단

정하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그의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들 부부는 이웃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성품 역시 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그는 매우 꼼꼼했음도 알 수 있다. 물론 그가 오랫동안 이사를 하지 않았던 탓에 많은 자료들이 남을 수 있었겠지만(정병준 2002) 수많은 기록 및 자료를 남기고 기증하게 된 데에는 그의 이러한 전반적인 성격 요인 또한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성격이라는 요인은 기록군의 형성과정과 결과물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5. 결론

이 글은 개인 기록의 고유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개인 기록이 조직기록과 다르다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구체화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이에 가장 조직 기록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개념모델 속에서 개인 기록이 갖는 차이를 살펴보고 개인 기록은 생산의 근거로서 규정이 유명무실하며 개인적인 특성과 개인을 둘러싼 내·외적 환경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사실들로부터 개인에 대해 주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개인 기록이 가지는 고유성의 중심에는 개인이 가지는 개별화된 특성이 있으며 ‘개인’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격을 연구하는 것은 이를 위한 우선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성격은 기록 관리상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성격은 개인에 관한 이해를 통해 기록 생산의 배경을 이해하도록 돕고 둘째, 성격이라는 것은 개인에 관한 본질적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셋째, 성격을 통해 생산자 개인의 독특한 관점과 행동이 파악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개인의 활동과 특성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 이것이 개인 기록

화의 범위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이 논문에서는 실제의 개인 기록군을 검토하였고 개인의 표면적인 활동과 기록관리의 상관성을 관찰함을 넘어서 개인의 성격이 기록의 생산 동기나 맥락에 있어 일관된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인 기록에는 공적 기록에서는 찾기 어려운 개인의 내적 측면이 상당부분 포함 되어 있어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이 기록의 가치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개인 기록군은 개인 기록을 관리하는 주체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며 기록의 특성을 중심으로 개인 기록화의 범주를 발굴·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 기록이 처한 맥락이 사적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Carter et al, 2013). 개인의 삶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개인 기록이 처한 맥락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다양한 조직의 일원으로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을 공적 혹은 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기록의 문제는 공적 혹은 사적 영역이 공유하고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개인 기록의 수집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양자를 포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개인 기록의 가장 큰 특징은 기록 맥락으로서 개인적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생산자에 대한 주목이 중요하며 생산자가 보여주는 고유한 특성을 규정해 보고 기록화의 원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기록관리기관에서 가치있는 개인 기록 군을 선별하여 수집하고 적절한 관리 방향을 설정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원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기록에 관한 관심이 더욱 깊어지고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윤경. 1985. 『한결 金允經全集』.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오석홍. 2014. 『조직이론』. 서울: 박영사.
- 한결 김윤경 선생 기념사업회. 1979. 『한결 김윤경 선생』. 서울: 보성문화사.
- 토박이사전 편찬실(역). 2013. 『보리 국어사전』. 파주: 도서출판 보리
- 홍숙기. 2014. 『성격심리』. 서울: 박영사.
- 로광욱. 2000. 나의 평양행과 미국에서 본 정상회담. 『역사비평』, 52, 17-28.
- 이원규. 2008. 공공기록, 민간기록, 그리고 국가기록. 『기록인』, 5, 8-13.
- 정병준. 2002.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盧光郁 기증사료의 해제·목록, 국사편찬위원회 (편). 『해외사료총서 2.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I-NARA 소장 RG 59·RG 84』, 333-466.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정병준. 2004. 김용중의 생애와 통일 독립운동. 역사문제연구소 2004년 학술토론회 『자료집』. 서울: 역사문제연구소.
- 최효진, 임진희. 2015. 개인 일기의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와 전망. 『기록학연구』, 46, 95-152.
- 서동국. 2016.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한 개인 기록의 활용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재련. 2016. 『개인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인혁. 2015. 『생애사 연구에 기반을 둔 개인 기록화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Liebert, R. M., & Liebert, L. L. 1998. Personality. Strategies & issues. Pacific Grove, Calif. :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Pervin, L. A., & John, O. P. 1997.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7th Ed. New York : John Wiley & Sons.
- Craig, Barbara. 2001. "The Archivist as Planner and Poet" Thought on The Larger Issues of Appraisal for Acquisition, Archivaria, 52, 176-183.
- Cook, Terry. 1997. What is Past is Prologue: A History of Archival Ideas Since 1898, and the Future Paradigm Shift, Archivaria 43, 17-63.
- Hobbs, Catherine. 2001. The Character of Personal Archives: Reflections on the Value of Records of Individuals. Archivaria, 52, 126-135.
- Hobbs, Catherine. 2010. Reenvisioning the Personal Reframing Traces of Individual Life. In :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Terry Eastwood and Heather MacNeil, ed. Santa Barbara, Calif. : Libraries Unlimited.

Carter, Rodney & Fisher, Rob & Harris, Carolyn & Hobbs, Catherine. 2013.
Perspectives on Personal Archives. *Archivaria*, 76, 1-5.

